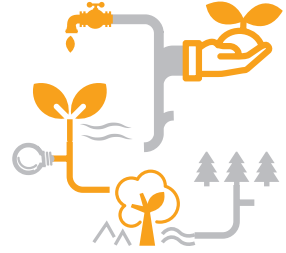


2018 환경영역 이야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전환사회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아우르는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기후와 쾌적함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합니다. 환경영역기금은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으로 만드는 녹색전환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함께 사는 사회로의 변화를 지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2018 환경영역으로 만든 작은변화

함께 한 기부자 165명



정기기부자 93%



일시기부자 7%

함께 한 나눔 26,703,600원



개인기부금 93%



기업기부금 7%



정기기부금 91%



일시기부금 9%

주요 지원사업

변화의시나리오 환경영역 프로젝트 | 풍력공로자 지원사업 등

지원금액 : 총 191,520,771원



개인 지원 2명



단체 지원 13개

함께 만든 변화

변화의시나리오 환경영역 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 8대 영역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의 공익활동을 발굴,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사회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환경영역의 시범적이며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 공익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11 단체, 2개 모임



지원금액
179,954,458원



단체 당 최대 2천만 원, 모임 당 최대 500만 원 지원

풍력공로자 지원사업

기금출연자의 지정기탁사업인 '풍력공로자 지원사업'을 환경영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풍력산업의 활성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 풍력산업의 발전과 확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호민 기우봉 풍력상'을 시상했습니다.



지원대상
풍력공로자 2명



기금출연자
호민(好民) 기우봉 박사



매년 세계풍력의 날 시상 및 상금 천만 원



함께 만든 변화

도시공원의 작은 변화 _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2020년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고시된 공원 전체 면적의 53.4%가 사라지게 되어 1인당 공원 면적은 약 4㎡로 줄게 됩니다.

“도시공원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 문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도시공원이 생태 보전이나 미세먼저 저감 등의 다양한 생태 복지를 인간에게 제공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얼마나 없었는지 알 수 있죠. 토지 공개념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태복지를 위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운동을 해온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해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건 일상생활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중요합니다. 이번 서울시의 사례는 국가의 정책을 넘어서는 선진 사례들이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여태 환경운동 하면서 이렇게 신난 적이 없었어요. 사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랄까요. 요즘은 강연에 나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태복지 수준이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일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내 아이가 살아갈 사회를 위한 작은 움직임

‘가족 기부’ 임은정 기부자

“기부는 기울어진 내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것!”



큰 아이가 올해 열 한 살이니,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은 세월도 벌써 11년이다. 11년 전,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마을 모임이며, 집회며 빠지지 않는 ‘활동가’가 되었다.

“전 평범한 주부예요. 공식적인 활동가는 아니예요.”라며 겸손하게 말하지만 ‘마을공동체, 세월호, 일본군위안부, 공익제보자’ 등 관심 두고 조금이라도 참여해본 사회 이슈가 한둘이 아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결혼 전에는 회사 생활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사회는 좀 더 따뜻하고 공정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건 부당하잖아요?”

첫 아이의 ‘임신 선물’로 시작한 가족 기부

기부는 그녀가 아이에게 준 ‘첫 선물’이기도 했다. ‘돈으

로 아이를 키우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녀는 첫째 희재에게 돈으로 얻는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었다. 둘째 ‘현웅’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웅이는 두 달 일찍 이른둥이로 태어났다. 그래서 엄마는 현웅이 이름으로 이른둥이를 지원하는 사업(다솜이 작은숨결살리기)의 기부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부는 나를 일깨워주는 ‘인생 교과서’

그녀는 “재단 뉴스레터를 통해 사회를 배우고, 일상에서 예습, 복습한다”라고 말한다. 김군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고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우쩌다슈퍼맨 캠페인>을 보며 동네에서 만난 ‘공익제보자’를 위해 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작은 기부의 시작은 그녀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다. 그녀에게 나눔은 일상에 활력을 주는 즐거움의 원천이자, 끝없이 자신을 일깨워주는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환경영역’의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를 만든 기부자님,
 참 고맙습니다!

강경은	김선희	김하얀	박경빈	사이동택배	신지윤	유남욱	이권희	이지웅	임화원	주)서현유통	한은일
강동민	김성림	김하웅	박광식	서동욱	심영보	유성균	이동석	이지현	장우혁	자선희	한정민
강성훈	김세종	김혜정	박상형	서성	심종섭	유은경	이상수	이재영	장이아	차민영	한진선
강인규	김소연	김호숙	박사회	서양자	안명희	유지선	이상준	이해민	장정희	최경덕	허자운
강형민	김신자	김희경	박유현	석현진	안영순	윤다영	이수경	이현선	정효선	최미정	허정아
강해정	김영구	나현찬	박종희	성경희	양선미	윤대관	이순미	이훈욱	전주희	최성순	현영아
고영주	김영숙	나형준	박준희	손꽃노을	엄희웅	윤미현	이연숙	임선하	정상철	최용복	홍경선
곽지현	김은희	남기포	박지수	손도일	오나윤	이윤희	임수아	정소희	최유진	최영란	홍영란
김경희	김인환	남성은	박찬중	손수정	오준봉	윤병휘	이은영	임수정	정재철	최진석	황경숙
김교신	김재운	남현재	박희경	송주영	우성영	윤석신	이재훈	임양희	정해용	칠금초등학교3~3학년생들	황미리(주)우영ENG
김보영	김종덕	노상애	박희영	송현	우성섭	윤성준	이정민	임영광	제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1반	황선순	황선순
김상근	김주연	류광우	배무열	신솔아	원소희	윤옥연	이정숙	임은정	조석근	탁희영	황윤희
김상희	김진수	류호경	백명선	신은정	원유미	윤장호	이제훈	임정애	조성열	한가락	(주)호환스틸
김선주	김태용	마살뷰티살롱(명동점)	변원옥	신재용	원종합상사	이경용	이지선	임태열	조일라	한은경	

위기에 처한 전국 도시공원 현황

